N.E.W. SEMINARY 학습 가이드

요나의 불순종과 이방인의 구원

Hoon Kim 목사, 2026년 10월 11일, 요나 1:4-17

가르침: Hoon Kim 목사, N.E.W. Church. 설교는 목사님이 전하신 원문과 육성 그대로이며, 목회자 자료는 AI의 도움을 받아 영어에서 번역했습니다. 전체 검토에 앞서 2026년 11월 11일에 먼저 나눕니다.

무료로 듣고, 내려받고, 나눌 수 있습니다: newexodusseminary.org/ko/2026-10-11-new-jonah-1-the-hound-of-heaven-and-the/

학습 가이드

스터디 가이드: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과 이방인의 구원

핵심 진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격하시는 당신의 사랑과 인간의 불순종이 충돌하는 상황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을 본능적 반응과 종교적 자기 확신에서 참된 경외와 기도와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핵심 구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 1:14, 개역한글)

배경 해설

1. **폭풍의 주권 (요나 1:4):** 고대 근동의 항해 문화에서 폭풍은 흔히 대적하는 혼돈의 바다 신들의 탓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히브리어 본문은 여호와께서 신적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폭풍을 직접 던지신 것으로 인격화하여 묘사합니다. 어떤 항해 기술이나 배의 짐을 가볍게 하는 노력도 창조주께서 부르신 폭풍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2. **제비뽑기 (요나 1:7):** 고대 세계에서 제비뽑기는 운명이나 신의 노여움을 알아내기 위해 이방 문화권에서 널리 행해졌습니다. 비록 미신에 뿌리를 둔 행위였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계적인 점술의 방향을 바꾸셔서 제비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요나에게 뽑히게 하셨습니다.
3. **바다를 파다 (*Chatar*, 요나 1:13):** 히브리어 동사 '하타르(*chatar*)'는 문자적으로 흙을 "파다" 또는 벽을 "뚫다"를 뜻합니다. 본문은 이 생생한 단어를 사용하여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노를 젓는 모습을 마치 삽으로 파도를 파내는 것처럼 묘사하며, 하나님의 작정에 맞서는 인간 노력의 헛됨을 극적으로 보여 줍니다.

4. **제단 없는 이방인의 예배 (요나 1:16):**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 선원들이 거룩한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고, 상선의 갑판 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며 서원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참된 예배자들을 세우신다는 복음의 위대한 비밀을 예표합니다.

나눔 질문

1. **본문 이해:** 폭풍이 닥쳤을 때 선원들은 처음에 어떻게 스스로를 구하려고 했으며, 왜 그들의 상식적인 항해 방식은 실패했습니까 (요나 1:5)?
2. **반응 살펴보기:** 요나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선원들은 왜 요나의 지침을 즉시 따르지 않고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까? 잘못 길들여진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적 자기 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3. **하나님의 성품 발견하기:** 14절에 나오는 선원들의 기도와 배 위에서 침묵하던 요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선원들의 고백, "주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행하셨나이다" 는 성경적인 기도와 항복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4. **그리스도와 연결하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사건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수님의 기꺼운 죄 없는 희생은 요나의 마지못한 침몰보다 어떻게 더 위대합니까?
5. **개인적 적용:** 현재 여러분 마음 밑바닥에 숨어 있는 '요나'(완고한 자기 확신, 쓴 뿌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도덕적 자만 등)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항복의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휴대폰용 요약 (WhatsApp)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완고한 반역을 사용하셔서 이방 선원들을 구원의 믿음으로 이끄셨고, 그분의 긍휼이 가장 뜻밖의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도덕적 노력이 실패할 때, 참된 평안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신뢰할 때에만 임합니다. 오늘 당신이 바다에 던져 버려야 할 숨은 교만은 무엇입니까? *핵심 구절: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 1:14, 개역한글)*

가르침 개요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과 이방인의 구원

- **본문:** 요나 1:4–17
- **핵심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격하시는 당신의 사랑과 인간의 불순종이 충돌하는 상황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을 본능적 반응과 종교적 자기 확신에서 참된 경외와 기도와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1. 뜻밖의 은혜의 선물

- **성경 구절:** 요나 1:4–5, 17; 로마서 11:28–31
- **핵심 통찰:** 제약의 역사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종종 인생을 바꾸는 치료제가 되곤 합니다 (보툴리눔 독소가 보톡스가 되거나, 당뇨약이 비만 치료제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집스럽게 저항하는 동안, 이방 선원들은 뜻밖에도 구원이라는 선물을 어부지리로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11장에서 설명하듯이,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넘어짐은 먼저 이방 민족들에게 긍휼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 **관련 시각 자료:** 시각 자료 1 (제목 카드), 시각 자료 2 (불순종과 은혜)

2. 상식적인 반응에서 참된 믿음으로

- **성경 구절:** 요나 1:4–5; 마가복음 4:35–41
- **핵심 통찰:**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은 항해 경험이나 짐을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성도가 순전히 인간적인 논리와 과거의 훈련에만 의존할 때, 인생은 제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내 답을 미리 적어 내미는 태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괄호를 치고 바짝 엎드리는” 믿음의 훈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관련 시각 자료:** 시각 자료 3 (폭풍 속 네 가지 반응)

3. 미신적 종교를 넘어

- **성경 구절:** 요나 1:7–10
- **핵심 통찰:** 제비뽑기는 운명을 깨닫거나 초월적인 힘에 의존하기 위한 고대 이방 종교의 방식이었습니다. 제비가 요나를 지목했을 때, 그는 여호와를 바다와 마른 땅을 만드신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선원들의 두려움은 즉시 자연적인 폭풍에서 폭풍 배후에 계신 주권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복이나 구하는 초월적 힘으로 대하는 기복 종교에서 벗어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 **관련 시각 자료:** 시각 자료 3 (폭풍 속 네 가지 반응)

4. 양심을 깨뜨려 참된 항복의 기도로

- **성경 구절:** 요나 1:12–15; 누가복음 1:38
- **핵심 통찰:**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선원들의 도덕적 양심이 이를 거부했고, 그들은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하타르(*chatar*)'는 그들이 말 그대로 삽으로 흙을 파내듯 성난 바다를 파고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도덕적 양심은 인간의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곤 합니다. 그들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침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여호와여, 주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써 순종했습니다.
- **관련 시각 자료:** 시각 자료 4 (단어 연구: 하타르), 시각 자료 5 (핵심 성경 구절: 요나 1:14)

5. 참된 예배자의 탄생

- **성경 구절:** 요나 1:16; 로마서 11:30–31
- **핵심 통찰:**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지자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는 거룩한 경외심(*gadol*)에 사로잡혀 서원하고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성전도 제사장 가문도 없던 이방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바다에 던져졌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 흠 없는 순종으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까이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 **관련 시각 자료:** 시각 자료 6 (거룩한 두려움의 성장: 가돌)

마치는 결단

모든 성도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요나가 뭘까" 인간적인 상식과 종교적인 흥정, 그리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도덕적 양심을 바다에 던져 버리십시오. 주권자이신 왕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성경 본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대한성서공회, 1961).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난 본문을 바꾸지 않고 인용했습니다.
